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12.12(화) 16:00부터
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2023년 지역경제세미나 개최 결과

-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도민일보·강원도민TV와 함께 2023년 12월 12일(화) 오후 3시 30분부터 「기후변화와 강원경제」를 주제로 2023년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
 - 주제발표에서는 관광업(제1주제)과 농업(제2주제)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및 정책적 대응방향과,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(제3주제)에 대해 살펴보았음
 -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음
 - 이날 세미나에는 지자체 정책 담당자, 주요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관계자 다수가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음

- 붙 임 : 1. 2023년 지역경제세미나 개요 1부.
2. 주제발표 내용 요약 1부.

문의처 :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김동욱

Tel : 033-258-3282 Fax : 033-257-0525 E-mail : gangw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>지역본부>강원본부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강원본부

(붙임 1)

「2023년 한국은행 강원본부 지역경제세미나」 개요

□ 주 제: **기후변화와 강원경제**

* 강원도민일보·강원도민TV와 공동주최

□ 일 시: 2023년 12월 12일(화) 오후 3:30~5:40

□ 장 소: 한국은행 강원본부 3층 강당 [강원도민TV Youtube 채널 생중계]

개회	
3:30~3:45 (15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개회사: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■ 환영사: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■ 축 사: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■ 기념사진촬영
주제 발표	
3:45~4:05 (20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위기와 기회-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- 김범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4:05~4:25 (20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후변화시대 강원농업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 -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
4:25~4:45 (20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현황 및 대응방향 - 한대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선임연구원
4:45~5:00 (15분)	Coffee Break
종합토론	
5:00~5:40 (40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회자: 정희상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■ 토론자: 탁연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 손 철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·부동산학과 교수 강종원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호석 강원도민일보 경제스포츠부장

세미나 주제발표 내용 요약

주제발표 I.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위기와 기회 -기후변화를 중심으로- (발표자 : 김범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)

* 한국은행 강원본부 공동연구과제(기획금융팀 김효정 조사역)

1. 검토 배경

-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강원지역의 관광산업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*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*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겨울철·여름철 관광지인 스키장과 해수욕장 방문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2. 겨울철 관광지(스키장)에 대한 영향

- 강원지역 9개 스키장의 입장객 통계(2013년부터 2017년)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, 평균기온이 1도 상승*하면 월별 스키장 방문객(월평균 68,320명)이 10,962명(16%)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
*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0년동안 0.18도 상승하였으므로, 평균기온 1도 상승에는 55.6년이 걸림

- 현재 기후변화 추세상 향후 5년간(평균기온 0.09도 상승) 강원지역 스키장 방문객은 월평균 984명(1.44%) 감소할 것으로 예상

3. 여름철 관광지(해수욕장)에 대한 영향

- 강원지역 50개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 통계(2006년부터 2012년)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, 한달 중 일 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인 일수가 하루 늘어나면 해수욕장 방문객(261,656명)은 27,322명(10.4%)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현재 기후변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년 강원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24,857명(9.5%)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2010년 이후 해수욕장 방문객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측에 신중할 필요

4. 평가 및 시사점

- 기후의 장기추세에 맞춘 분석 결과, 평균 기온의 상승에 따라 겨울철 관광지인 스키장 입장객 수의 감소가, 여름철 관광지인 해수욕장 방문객 수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함
 - 기후변화로 연중 스키장 입장객 수 감소폭보다 해수욕장 이용객 수 증가폭이 크지만, 해당 분석에서 여름철 온도가 적정수준보다 높을 시 오히려 해수욕장 수요가 감소*한다는 점이 고려되지는 못함을 유의
 - * 여름철 해수욕장의 경우 제한된 면적에 사람이 몰리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
- 강원지역 대표 계절 관광지가 국내외 경쟁지*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채로운 문화 축제 등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필요
 - * 겨울철 관광지는 일본 북해도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, 여름철 관광지도 국내 해수욕장뿐 아니라 주변국의 피서지로 대체될 가능성

주제발표 Ⅱ. 기후변화시대 강원농업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

(발표자 :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)

1. 기후변화와 농가경영

- 기후변화로 작물 주산지가 변경되고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농업 생산량·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가의 경영상 불안정성이 증대
 - 특히 강원지역은 농가인구의 감소(호당 인구 2010년 2.65명 → 2022년 2.16명), 경영주의 고령화 심화(2010년 27.2% → 2022년 41.3%) 등으로 농업부문 지속가능성의 위협요인이 큰 상황

2. 위험관리 정책의 필요성

-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경영 위험은 사전 판단이 어렵고, 영향범위가 넓기 때문에 농가 단위대응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위험을 분담해줄 필요

- 농업재해보험*과 공익직불제**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변동성을 완화하고 소득안전망을 강화

* 농가의 소득·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(수확량 감소 보장)하는 제도

**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공동체 유지,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(환경·생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)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

— 농업재해보험은 보장 품목의 사각지대 등으로, 공익직불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준수사항 미흡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여도가 낮은 상황

3. 정책제언

□ 기후변화 시대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나갈 필요 (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: 기후변화 ↔ 농업부문)

- 농업재해보험은 신규 상품개발, 사전 예방체계 강화 등을, 직불제는 (가칭)탄소중립 직불제 신설, 기존 준수사항 조정 등을 추진할 필요

- 강원지역의 경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구체화하는 한편 농어업 회의소 활용, 지자체와 파트너십, 주요 연구기관(도농업기술원,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)과 협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갈 필요

주제발표 Ⅲ.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현황 및 대응방향

(발표자 : 한대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선임연구원)

1. 강원지역 기후변화 전망

□ 강원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현재대비 2040년대에는 2.8°C, 2100년에는 5.0°C 상승(RCP 8.5 기준)할 전망이며, 이에 따라 폭염 및 열대야일수가 증가하고 1년 중 여름의 비중이 커질 전망

*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정치적, 사회적 노력이 부족하여 복사 강제력(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힘)이 2100년 후 8.5 W/m²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

- 30여년 후 현재대비 폭염일수는 4.2배(현재 3.6일 → 2050년대 15일), 열대야 일수는 14.3배(0.3일 → 4.3일) 늘어나는 한편, 21세기 후반에는 여름이 121일*로 1년중 가장 긴 계절이 될 것으로 예상

* 2071~2100년에는 2001~2010년 대비 여름(65일 → 121일)이 늘고 겨울(141일 → 102일)이 줄어들면서 1년중 여름의 비중이 33%로 15%p 상승(18% → 33%)

2.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

-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% 감축,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
 - 탄소중립 사회, 탄소저감형도시, 시민공감형 정책 실현을 구체적인 추진 방향으로 정하여 강원지역의 풍부한 자원 및 산림을 지속가능케 할 계획
 -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체감주체는 지역주민들인 만큼 교육 산업 확대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